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자주통일위업의 전환기를 마련하시는 길에서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지난 10년로정에 조국의 자주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지니시고 걸음걸음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의 자욱도 깊이 새겨져있다.

조국통일 외세에 의해 삼천리강토의 허리가 봉창 잘리워 두동강이 난 그

주체적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

홀려온 10년세월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돌이켜보면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주체100년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애국투쟁으로 보시고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갈것을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세발전의 매 시기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을 위한 파업과 방도들을 명화하게 제시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이 철두철미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케도를 따라 전진해나갈수 있게 이끌어주시었다.

새해를 맞으며 하신 역사적인 신년사들을 비롯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대회보고들에서 업적을 천명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 투쟁과업들은 언제나 공화국인민들은 물론이고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의 가슴가슴을 세찬 격정으로 뿜어내리게 하였다.

남로부터 장장 70여년세월 민족성원 누구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겨레의 최대수인.

이렇듯 절절한 겨레의 념원을 풀어주시려 제일 마쓰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 누구보다도 삼천리강토와 겨레를 사랑하시기에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다.

지금도 사람들은 주체105(2016)년 5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하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고해진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향을 확고하게 제시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날의 거룩하신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려 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겨레의 통일열망을 헤아리시고 세차례의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시어 판문점선언을 비

롯한 북남선언들을 채택하시어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무를 열어주시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위업수행에서 엄청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어있지만 겨레의 조국통일대행진을 계속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제 이뿐이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들의 위엄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고 조국통일업무를 기어이 성취하시길 굳은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그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영도의 손길에 의해 폭력과 시련속에서도 조국통일위업은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북남관계해결의 근본원칙 천명

이번에 공화국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은 겨레의 가슴마음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대한 불타는 열의로 끓여버리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의연 불안하고 엄청난 경제속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시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었다.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북남관계악화의 원인을 명백히 하고,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 북남관계를 바로 해결하자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여야 한다는 것, 북남선언들을 무조건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다.

북남관계악화의 원인과 그 해결방도가 명확히 밝혀졌으므로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고 온 겨레가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의지를 안고 자주적 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천명된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은 북과 남은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은영도자는 정지에게 나 서신》 첫 시기부터 국제사회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세계정세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에 크게 기여하신데 대해 사람들은 경탄을 표 시하고있다.》, 《조국통일의 구성 이신 김정은은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이것이 오늘날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활히 밝혀주시며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대한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찬란의 목소 리들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이 땅에서 통일의 새 아침은 기어이 밝아오야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력적인 영도로 경제발전과 국가행위력완성의 대업을 안아오시고 그 힘으로 2018년 조중, 남북, 조미관계 변화를 이끌어오신데 대해 서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은시대 2기》는 경제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으로의 백미행군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집권회의와 2021년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통해 《김정은시대 2기》의 구상을 확립할수 있다고 서술하였다고 한다.

특히 백미를 타고 훈년을 맞으며 백두산을 오르시는 김정은 총비서의 모습은 놀라움을 가져다주었다.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뒤덮어도 조금도 꺾이지 않는 백두산처럼 북은 이제 주체변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정면 돌파할것이다.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을 압도하겠다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의 구상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면서 김정은총비서의 구상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대변혁의 5년》이라고 제시한 5년안에 모두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고 한다.

현재 도서는 서울의 《교보문고》를 비롯한 주요도서관들에서 광범히 판매되고있다고 한다.

통일의 령수, 민족의 태양을 훑모고 따르는 민심의 대하는 도도히 굽어치고있는것이다.

《백두산과 함께 열린 김정은시대 2기》

본사기자 유금주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 (2015년)

언제나 조국통일을 위해 심려하시며

주체78(1989)년 3월말 어느 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의 문인 수령님께서 문목사에 가서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 말씀은 들으면서 주석님은 조국통일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는 민족의 구세주이시라고 거듭 되뇌이시고 그는 조국을 통일하자면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였는데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고 하였다.

수령님께서 환히 웃으며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 같

은 외세를 등에 업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매관자본가 는 반대하여야 하지만 민족적 량심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려고 하는 민족자본가는 또 수십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자 문목사는 사실 자기는 자본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주석님을 찾아왔는데 민족 자본가들도 단결할 수 있다고 하시니 조국통일은 벌써 이루어진것이나 다행없다고 기탄없이 소견을 표 시했다.

수령님께서 미소를 머금고있는 문목사의 얼굴에서 통일을 위해 바쳐진 그의 고민이 얼마나 깊고 큰것인가를 헤아리고계시 었다.

민족의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이라니것을 종자로 한 다부작애송화 《민족과 운명》이 창작되어 사 람들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모으고있던 주체81(1992)년 5월 무렵이었다.

어느날 창작가들과 자 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민족의 운명문제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 작품의 형상에 대해 진지하게 교시하시었다. 그러 시고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하루빨리 조 국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다부작애송화 《민족과 운명》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는데서 문화예술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길로, 조국통일의 길로 이끌어아가는데서 선도자적역 할 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가르쳐주시었다.

이것이 조국통일을 위한 사자 고 민의 의지이다. 《민족의 운명》이 창작되어 사 람들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모으고있던 주체81(1992)년 5월 무렵이었다.

어느날 창작가들과 자 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민족의 운명문제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 작품의 형상에 대해 진지하게 교시하시었다. 그러 시고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하루빨리 조 국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다부작애송화 《민족과 운명》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는데서 문화예술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길로, 조국통일의 길로 이끌어아가는데서 선도자적역 할 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가르쳐주시었다.

이것이 조국통일을 위한 사자 고 민의 의지이다. 《민족의 운명》이 창작되어 사 람들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모으고있던 주체81(1992)년 5월 무렵이었다.

통일을 불러 공화국의 첫 교육상 (2)

남조선에서 진행되고있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창립하기 위한 활동사업에 신민당 당수로서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아버지수령님의 믿음과 기대는 백남운선생을 크게 감동시켰다.

하여 선생은 공산당, 인민당과 합동하여 근로대중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성스럽고도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러나 외세와 그에 야 합한 반동들의 집요하고도 간교한 리간술에 넘어가 갈망정광하던 선생은 끝내 《분열주의자》, 《우익기회주의자》로 지탄받고 정계에서 몰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아, 나의 운명은 이렇게 끝장나고마는가.

선생은 가슴을 치며 통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누구도 돌아보는이 없었고 친구들까지도 그를 외면하였다.

그의 정적적운명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잠 못이루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합동문제에 대한 백남운선생의 립장과 태도가 아무리 그릇된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절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민족적원리도 있고 애국적

도 지니고있는 그가 여전히 근로민중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었던것이다.

이렇게 되어 백남운선생은 민족앞에 두번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며 1947년 5월 평범한 중간계층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사명을 지닌 근로인민당이 결성된 후 부위원장이라는 중임을 지니게 되었다.

아버 이수령님께서 그후 백남운선생에게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토 하는 남부련석회에 참가 할데 대한 초대장도 보내주시었다.

이것은 그에게 다시없는 행운이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부련석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곳엔 뵈고있던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는 영광을 지니었다.

후날 백남운선생은 그날의 감회를 두고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돌이켜보노니 5천년을 헤아리는 파란많은 배달민족의 갈고리속에 나라와 겨레의 운명이 형성되어 오셨던 각각의 시기는 허다했지만 가물가물 가져가는 그 가없는 운명을 견지고저 재산의 유

된 선생은 그 품을 떠나서는 애국은 고사하고 자기 개인의 운명도 지키고 빛날일수 없을 절감하였다.

하기에 선생은 공화국의 품에 영원한 삶의 닦을 내리었다.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의 총선기에 의하여 통일정권 중앙정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주체37(1948)년 9월 초 어느날이었다.

이날 백남운선생을 집무실로 불러주시던 아버 이수령님께서 앞으로 수립되는 공화국정부가 실시할 교육정책의 인민적 성격과 내용들이며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백남운선생에게 선생은 과학자인데 자기의 전문과는 좀 어긋날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 후대교육과 간부양성사업을 맡아주어야 하겠다고, 나라의 후대교육을 담당할 공화국 교육상을 맡아주면 고맙겠다고 하시었다.

선생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백남운선생의 이런 남 모르는 마음 속고 충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아버 이수령님께서 그 교육상으로서 민족간부양성과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 었다.

본사기자

그러자 아버 이수령님께서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꼭 이 사업을 맡아주어야겠다고, 새 나라, 새 사회 건설에서 선생같은 지식있는 간부들이 매우 귀중하다고, 우리 지혜와 힘을 합쳐 일제가 남긴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전체 인민이 마음껏 배울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시해나가자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며칠후 아버 이수령님께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 같은 의사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는 역사적인 자리에서 백남운선생을 공화국의 첫 교육상으로 내세워주시었다.

그날 밤 선생은 자기가 받아안은 영광과 행복이 꿈만 같고 믿어지지 않아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망국노의 처지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치욕도 맛보았고 원수들이 살판치는 남녘땅에서 번뇌에 찬 나날을 보낸적이 있는 자신이 공화국의 새 령수자와 더불어 그러한 값높은 삶을 지니게 될줄 어찌 상상조차 할수 있었겠는가.

그럼수록 근심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백남운선생의 이런 남 모르는 마음 속고 충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아버 이수령님께서 그 교육상으로서 민족간부양성과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 었다.

본사기자

이 길밖엔 더는 없다

나는 이 땅의 이름없는 시인

한번이라도 반성해본적 있었다나

오늘 더듬어 펼쳐보노라

개관하지 않을수 없구나

76년 민족의 분열사를

우리 민족이 영영 분열되기를 바라는 외세에게

갈라져 사는 8천만겨레의 절통함이며

민족의 통일중대사를 청탁한다니

두동강난 삼천리강토의 몸부림이며

우리 민족이 영영 약소하기를 바라는 외세에게

무엇때문에 과연 무엇때문에

이 아픔 이 비극 오늘까지 겪는것인가

민족의 장래를 의탁했더니

이아름 이 비극 오늘까지 겪는것인가

세대를 몇번 넘고 세기를 이었던만

이어하여 분열의 끊은 더욱 깊어지고

피를 나눈 혈육들 등지고 살아야만 하는가

장구한 민족사를 뒤돌아보라

바로 외세때문이다

우리 강토 둘로 갈라놓은 저 악한들로 하여

반만년 단일민족이 남남처럼 갈라져 사는

승미사대가 남긴것은 치욕과 굴욕

외세의존이 낳은것은 예측과 모멸뿐

이수치 이 통분함

민족의 지향, 민족의 뜻 따라야 하리

가슴에 조선민족의 피가 끓고있다면

우리의 얼이 융합할수 있던 말이나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하리

생각해보라

외세가 우리 겨레에게 정녕 무엇을 주었

단가

헤어져 사는 아픔에 몸부림치는

민족의 지향, 민족의 뜻 따라야 하리

비극의 운명밖에 더 있다더냐

분열된 이 나라 우리 민족앞에

그렇다!

민족자주-이는 민족의 지향이며 요구

겨레의 존엄과 강성의 길이기도

우리가 갈길은 오직 하나

민족자주 이 길밖에 더는 없다